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 이야기

장학월보

Vol 256 2014 / 6



신록(新綠)을 보며

글 남해 남수중학교 교사 정삼조

당신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큰 산이 샘을 기르고
그 흘러나온 물이
그 많은 줄기가
강을 이루었던 것,

당신은 강만 기억하지만
그 작은 시냇물이
실핏줄처럼 모여
당신이 되었던 것,

이제 그 물가에서 기억하라
지난 것이라 말하지 말고
그 물줄기의 연속이라 하라

내가 가진 시간이
저처럼 남았으니
후회도 그 작은 실핏줄의 하나인 것,

그 무참했던 날의 부끄러움이여
그 아름다웠던 사랑이여
그 아름다웠던 실패여

그리고 이 새것, 여린 잎이여



Contents



04 권두언

화려하고 찬란한 유월을 기원합니다 / 교육감

06 생생현장

08 교육칼럼

기본에 충실한 교육 / 이정식

09 특별기획 / 연구학교

2014. 연구학교 운영 계획 / 심광보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제언 / 유승규
옹원 3Up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건강한 학교 문화 만들기 / 최연기
행복한 나를 찾아 가는 진목 진로 여행 / 김영한

18 교육정보

교육기부 / 장태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방안 / 성수민

20 좋은 수업

에피소드 중심의 六色 토의·토론으로 사고력 신장 / 석유승
좋은 수업은 선생님의 가슴에 있다 / 정혜옥

24 함께하는 학교

3-up, 3-down을 통한 HAPPY 교육실현 / 장영성
꿈과 행복이 자라는 무지갯빛 라운누리 / 강대근
음악을 즐기는 디지털 원주민들의 교실 / 최건희

31 이달의 교사

독도교육활동으로 나라사랑교육에 날개달기 / 오진혁

33 삶의 향기

재능 기부로 일궈낸 사랑의 교복나누기 / 정숙자
딸과 함께 본 영화, 겨울왕국 / 이성권
20대 청춘들에게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 윤금영

36 동아리 탐방

합천 얼을 계승하는 『삼가 춤 선비 동아리』 / 문주한

38 행복한 책 읽기

39 지상갤러리

사랑섬 추억 / 서경숙



표지사진 "태극기 휘날리며"
전수현(경춘초등학교 교무실무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7월호 모집 기간 : 2014년 6월 19일까지
- 모집내용 : 함께하는 학교, 좋은수업, 삶의향기(시, 수필, 독후감 등), 등 분량 : A4 1~2매 내외
- 원고보내는 곳 :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 ※ 내려받기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초등교육과 ▶ 부서사업 ▶ 보고서 / 간행물

2014년 6월 1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총괄 | 초등교육과 과장 이정식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심광보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이병만

편집위원 | 김정애, 김강희, 이우경, 정호찬, 박선정 인쇄 | 문성인쇄사 (055)282-9922


화려하고 찬란한 유월을 기원합니다

덩굴장미가 가지를 이웃집 담까지 뻗쳐 내 집 네 집의 경계를 허물며 행복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흐드러져 흘러넘친 붉은 꽃잎은 담장을 따라 유월이 오는 꽃길도 열었습니다. 짙은 녹음 아래 장미꽃 붉은빛이 더 선명해지는 계절, 세월호의 슬픔도, 6·25 전쟁의 상처도 그래서 더 아려오는 건 아닌지 꽃빛이 선명한 만큼 가슴 한구석 저려오는 아픔도 더해지는 유월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가운데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며 경남교육 유월을 존경하는 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열어봅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면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었고 그 동안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인재(人災)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에 대한 무시와 최소한의 양심,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결과의 반복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참사는 누구에게는 금쪽같은 자식을, 또 누구에게는 하늘 같은 아버이를 잃게 했습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 온 나라를 비통에 잠기게



하면서 안으로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밖으로는 대한민국 브랜드 이미지까지 추락시켰습니다.

이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실종자들과 팽목항에 줄지어 나부끼는 노란 리본, 그 리본 아래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자식 잃은 아버지의 흐느끼는 뒷모습이 6·25 전쟁의 아픔과 함께 또 하나 대한민국 유월의 사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이 계절에도 찬란한 덩굴장미처럼 금계국 노란 꽃 빛은 또 왜 그렇게 환한 낮으로 천지를 수놓는지요. 대한민국의 급속한 발전은 날마다 새롭게 열리는 길을 통해 더 가깝게 느끼곤 합니다. 사통팔달 어디로도 길이 나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산이 막혀 있으면 산을 뚫어 길을 내고, 바다와 강이 길을 막으면 다리를 놓고, 바닷속 해저터널을 만들어 길을 냅니다. 유월의 그 길에 금계국 노란꽃이 어디든 길을 따라 노란 리본의 물결처럼 흐드러져 더 숙연해집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도 길을 내지 않은 곳이 없는 우리가 진도 앞바다에 마지막 남은 단원고 아이들이 파도를 치솟아 바다만 바라보고 선 아버지께로 달려올 길은 왜 만들지 못하는지, 반백년이 훨씬 넘은 이산의 아픔을 치유할 남북의 통일로는 왜 아직도 닿지 못하고 있는지 유월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또 묻고 채근하겠지요?

아이들에게 마냥 내일을 기대한다고만 하기에는 너무 염치없는 일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그 동안 많은 땀을 흘린 우리 어른들이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주고 보호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듯합니다. 이제 유월이 더는 슬픈 시간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와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내년 이때쯤이면 우리 모두가 붉은 장미의 화려함과 금계국 노란 꽃잎의 찬란함을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2014. 6.

경 상 남 도 교 육 감

1



2



생생현장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3



4

- 1 201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안경맞춤지원 MOU체결(창원교육지원청)
- 2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원로 초청 간담회(하동교육지원청)
- 3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대상 목요명품 특강(창원도서관)
- 4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 협력수업(고성교육지원청)

- 5 특수교육실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위한 연수(밀양교육지원청)
- 6 학생평가 시스템 구축 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의령교육지원청)
- 7 비실연꽃마을 업무 협약(진주교육지원청)
- 8 2014. 상반기 『책 문화 나눔 장터』(김해도서관)
- 9 아이들 동지에서 봉사활동 펼쳐요!(통영교육지원청)
- 10 장애 학생 꿈과 일을 찾아가는 직업교육(거제교육지원청)
- 11 찾아가는 체험활동(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기본에 충실한 교육



글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온 국민을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 마음이 아프다. 세월호 참사는 선사와 선원들이 안전 운행을 위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후진국형 인재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반 상식에 가까운 기본적인 규정만 지켰어도 이런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던 폭발, 붕괴, 침몰 등의 사고 대부분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미비한 대비는 또 다른 사고를 일으켰다.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소용없다는 의미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을 다르게 해석해보면 미리 대비하지 못한데 대한 탓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철저히 대비하여 다음에는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해의 염원을 담아 사자성어를 내 놓곤 한다. 교육에 종사하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들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本立道生(본립도생)을 선택하였다. 本立道生(본립도생)은 논어 學而篇(학이편)에 나오는 君子務本(군자무본), 本立而道生(본립이도생)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군자는 기본에 힘써야하며,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이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문맹탈출을 목표로 공교육을 확대하여 교육의 양적 발전은 이루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빈곤탈출을 목표로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 세계 10대 경제교역국이 될 정도로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안전에는 소홀하였고 환경문제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데만 열중하였지 초석을 다지는 기본에는 충실하지 못한 결과라 여겨진다.

최근 교육계의 화두는 단연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또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산업사회에 적합한 기능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지식과 정보 활용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인성과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은 기초와 기본이 충실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기초학력 신장도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교육의 바탕 아래 이루어지며, 바른 인성의 함양 역시 기본적인 생활지도도 철저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 학교폭력예방, 학력향상, 사교육비 절감 등을 해결하는 것도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教育百年之大計란 말처럼 미래형 인간육성을 목표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노력하길 기대해 본다.



특별기획

연구학교 운영

경남교육은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틀 속에서 교실 수업 방법 개선을 통한 학력신장, 교육 현안의 선도적 해결과 일반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증대,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 구축을 통한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192개교의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4. 연구학교 운영 계획

글 경상남도교육청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심광보

1. 연구학교 운영 개요

가. 근거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나. 목적

- 1) 교실 수업 방법 개선을 통한 학력 신장
- 2) 교육 현안의 선도적 해결과 일반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증대
- 3)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구축을 통한 교육의 사회적 역할 제고

다. 연구학교 추진 방향

- 1)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틀 속에서 과제 수행
- 2) 연구학교 지정 기간은 6개월 이상 3년의 범위 내에서 담당과의 계획에 의거 운영
- 3) 연구학교 유공교원에게는 가산점 부여

라. 연구학교의 종류

구분	정책연구학교	시범학교
운영 목적	교육과정 · 교육방법 · 교육자료 및 교과용 도서 등의 연구 · 개발 ·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 ·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공개 및 지도 자문위원회 운영 (장학사, 연구사, 교수, 전문가 등) · 워크숍 및 협의회 형태의 실질적인 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공개 중심의 수시 학교공개 · 보고회방법 개선으로 토의형태의 보고회 권장 · 우수사례를 일반화하는 다양한 기회 제공

마. 2014. 연구학교 현황(192교)

학교급	교육부 요청			타부처 요청			도 지정			자율공모			계		
	신규	계속	계	신규	계속	계	신규	계속	계	신규	계속	계	신규	계속	계
초	12	12	24	8	4	12	41	3	44	18		18	79	19	98
중	18	11	29	1	2	3	23		23				42	13	55
고	7	7	14	1	1	2	21		21	2		2	31	8	39
합계	37	30	67	10	7	17	85	3	88	20		20	152	40	192

2. 연구학교 운영 방향

가. 연구 계획단계

- 1) 전 교원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연구학교 풍토 조성
- 2)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
- 3) 연구의 한계를 제한하고 문제점, 취약점, 개선점을 명확히 파악
- 4) 연구과제 이론에 대한 분석, 비판을 통해 시사점을 추출
- 5) 정직한 연구가 추진되도록 연구 주제, 연구 목적, 연구 내용에 대한 진실성 확보
- 6) 연구학교의 담당자 연수를 새로운 교직원 조직이 적극 참여하는 계획 수립
- 7) 계획 단계 지도는 연구학교와 담당 장학사(교육연구사)와 사이버 지도 적극 활용

나. 연구 실천단계

- 1) 모든 교직원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감하는 과제 실천
- 2) 연구학교 연구부장의 직무연수 실시 - 연구학교의 질 제고
- 3) 찾아가는 실천단계 지도-장학사/교육연구사/교육지원청 장학사/자문위원 등
- 4)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일반화 가능한 교육실천 프로그램 개발·활용
- 5) 지역과 학교의 특수성과 실정에 알맞은 특색 있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전개
- 6)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일관성 유지

다. 연구 보고단계

- 1) 공개보고회 방법의 다양화 - 단독 공개보고회, 합동보고회(권역별, 지역별, 영역별)
- 2) 참관 교사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
- 3) 성과위주의 보고보다는 실패한 경험, 문제점을 사례중심으로 공개한 정직한 보고
- 4) 검증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 및 반성, 발전적 과제와 제언을 제시
- 5) 보고내용을 학교홈페이지 및 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경남초등연구학교지원센터에 탑재
- 6) 우수 사례는 중앙교수학습센터에 탑재하여 전국적인 홍보와 교육시책에 반영
- 7) 연구학교 운영 결과의 일반화 및 후속 연구 강화

3. 단계별 연구학교 지도 및 평가 계획

가. 지도 계획

단계	회수	시기	지도 담당	지도 중점	지도 방법
계획 단계	수시	3~4월	담당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지원청장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운영 방향」내용을 중심으로 지도 연구문제, 실행과제, 실천내용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교육청의 교육시책 방향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ber 지도 - 지도담당과 개별 협의 및 지도 - 요청 지도
실천 단계	수시	5~9월	담당장학사 교육연구사 컨설팅장학요원 교육지원청장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교육청, 경남교육연구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과제의 실천 여부, 행·재정적인 지원 교육지원청, 경남교육연구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선행연구 자료 및 참고자료 수집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ber 지도 - 지도담당과 개별 협의 및 지도 - 요청 지도
중간·결과 보고 단계	1회	11~12월	담당장학사 교육연구사 컨설팅장학요원 교육지원청장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교육청, 경남교육연구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방법, 일정, 장소, 참석 범위 등 협의 교육지원청, 경남교육연구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 및 보고서 체제 등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방문지도

나. 평가 계획

평가 단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배점	평가자	평가 시기	비고
계획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연구 및 자료 수집 • 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 교육과정 분석 	• 사이버평가	10점	• 사이버 평가위원	• 5월	
실천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운영 • 연구과제의 실천 • 연구조직 및 자원 활용 • 교수·학습 전개 • 홈페이지 활용도 	• 사이버평가	30점	• 사이버 평가위원	• 9월	
		• 현장방문평가	20점	• 교육전문직 평가위원	• 5월~6월	
		• 자체평가	해당 없음	• 연구학교	• 보고회 전 1주일 이내	
연구결과 발표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성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회 운영 • 연구결과 일반화 가능성 • 연구의 지속성·진실성 • 연구학교운영의 효과 	• 사이버평가	20점	• 사이버 평가위원	• 11월	
		• 현장방문평가	20점	• 교육전문직 평가위원	• 보고회 당일	
		• 참관교원평가	해당 없음	• 참관교원 평가위원	• 보고회 당일	참고자료로 활용
계			100점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제언

글 명곡여자중학교 교장 유승규

1. 연구학교 연구는 모든 학교 구성원

연구학교는 안전(?)할까? 우리들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예사로 끼어들고,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눌러본다. 우리도 혹시, 세월호 선장은 아닐까?

위대한 발명가는 엉뚱한 생각을 잘 한다. 에디슨이 거위알을 품은 것도 이러한 관점으로 분석한다면,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에디슨은 그의 물음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다. “어미 거위가 알을 품으니까? 새끼가 나온다. 나도 그렇게 하면 새끼가 나올까?” 이러한 에디슨의 물음은 ‘남의 물음, 남이 알아주는 물음’이 아니라 그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물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선장처럼 행동하는 것은 나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물음이 아니고, 남이 준 물음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연구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연구학교는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연구이므로, 학교 전체 구성원이 연구자이다. 연구학교 과제에 대한 공감, 즉, 학교 전체 구성원의 간절한 물음, 절실함이 없다면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2. 쉽게 바뀌지 않은 연구학교 운영

연구학교 운영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 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검증된 수많은 자료나 프로그램은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언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학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 교사들이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학교의 당면 과제라기보다 업무를 주관하는 부장 및 분과장이 선호하는 과제이므로, 동료교사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실태조사를 진솔하게 하여, 학교에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학교 선정 시기도 다른 정책과제와 함께 교육구성원이 갖추어지는 3월에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둘째,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수업을 개선해야 한다. 연구학교는 실천 과정을 통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므로, 정상적 교육과정 틀 속에서 운영하여야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연구가 되지 않는다.

셋째, 보고회는 토론, 세미나, 워크숍 등 연구과제에 맞는 참여자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성과 위주의 보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미나를 예로 든다면, 수업공개, 연구과제 관련 특강, 협력기관 및 전문가 중심의 세미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넷째, 연구학교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더욱 발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연구학교 운영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연구학교 지정은 2년으로 하고, 보고회가 끝난 다음 향후 3년간은 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3. 교육구성원이 공감하는 과제 선정

지금까지 연구학교 운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는 교육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연구학교 과제 선정에 있다. 우리 학교의 당면 과제, 가슴에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연구학교 과제로 선정되어야 한다. 우리 학교의 물음일 때 연구학교 운영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용원 3Up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건강한 학교 문화 만들기

글 창원 용원중학교 교장 최연기

본 운영의 목적은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하여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학력향상, 인성함양,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여 학생·학부모·교사가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있다.



▣ 트라이앵글 1 : 학교스포츠클럽 For Me 프로젝트 운영 (체력 + 학력)

- 가. 학생 개개인의 희망 조사를 통한 맞춤형 클럽 개설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학생 개개인의 희망을 조사하여 다양한 맞춤형 종목을 개설하여 선택권을 보장
- 나. 뇌를 깨우는 전교생 M-N 1110 Running 시간 운영 및 수행평가 실시
집중력 있는 학습태도 형성을 위해 매일 아침과 점심시간에 1110달리기(하루(1) 한번(1)(10)분 이상 걷기-달리기 운동) 시간을 편성·운영하여 2학기 수행평가에 20% 반영함
*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체력 강화 → 집중력 향상 → 학업의 효율성 증가
- 다.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통한 공부하면서 운동하기의 중요성 인식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공부하면서 운동하기, 운동하면서 공부하기를 다양한 연수를 통해 중요성 인식



스포츠클럽 선호도조사



Morning 1110 달리기



스포츠 명사초청 특강

▣ 트라이앵글 2 : 학교스포츠클럽 For You 프로젝트 운영 (체력 + 인성)

- 가.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스포츠 성품교육' 실시
월 2회 스포츠클럽 활동 전 학습자료와 동영상을 통한 스포츠 성품교육을 실시하여 인성교육 및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노력

나. 배려와 나눔을 배우는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짹짹 리그전’ 운영

‘즐거는’ 스포츠를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 가입 학생들 중 짹짹 리그전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종목별 클럽 리그전 운영

	시기	참가 대상		시기	참가 대상
전반기	2013. 4~6 점심시간	6개 종목 19개 클럽	후반기	2013. 8~10 점심시간	6개 종목 19개 클럽
왕중왕전	종목별 왕중왕전 (2013. 11) : 전반기 우승 클럽 VS 후반기 우승 클럽				

※ 왕중왕전을 통해 선발된 선수들이 지역리그전과 교육감배 대회에 참가함.

▣ 트라이앵글 3 : 학교스포츠클럽 For Us 프로젝트 운영 (체력 + 소통)

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교육공동체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토요일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와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과 소통하는 배움의 장인 ‘토요스포츠데이’ 를 실시

영역	내용
인근학교와의 ‘주말클럽리그전’	안골포중학교와의 학교스포츠클럽 교류전
선배들과 함께하는 ‘흙커밍스포츠클럽데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가했던 선배들과의 학교스포츠클럽 교류전
학부모와 함께하는 ‘스포츠캠프’	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스포츠캠프 운영
지역스포츠클럽과의 ‘토요교류전’	지역스포츠클럽(청룡FC, 용원FC)과의 친선경기

나. 교내 체육대회 ‘I + YOU = We ’ 실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다. ‘通(스포츠) - 通(예술)’ 만남 실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지식을 예술 활동에 접목시켜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 표현력 신장의 기회를 제공

라. 여름방학 ‘등산 힐링캠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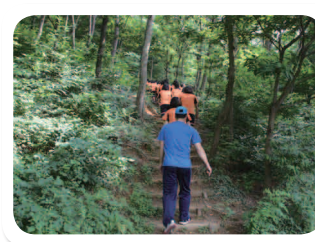
방학 중 등산캠프를 운영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힐링의 기회 제공



흙커밍 스포츠데이



야구경기 관람



등산 힐링캠프



행복한 나를 찾아 가는 진목 진로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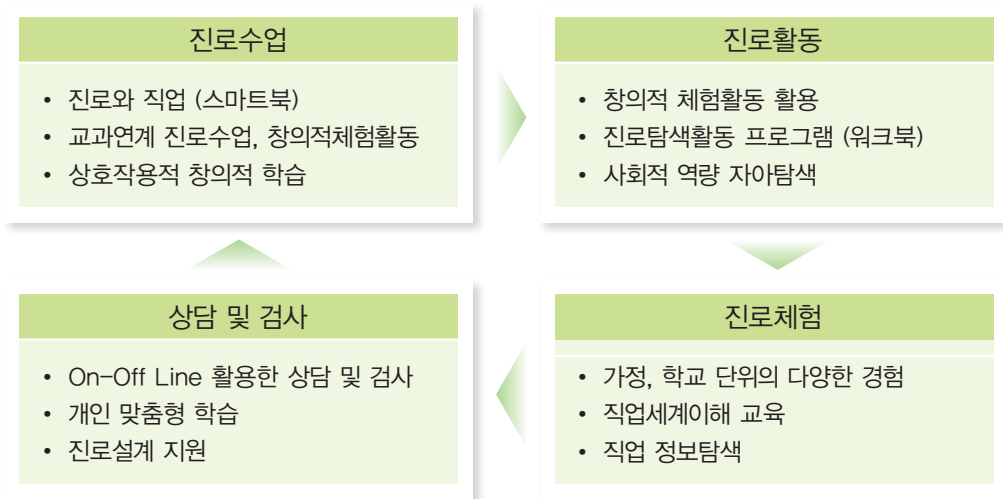
글 거제진목초등학교 교장 김영한

1. 들어가며

집을 지을 때 설계가 잘못되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신념과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적용을 통한 진로 인식 능력 신장’이라는 주제로 2013학년도 경남교육청 지정 진로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였다.

2. 꿈과 끼를 키워가는 진목인

「진목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따라 진로수업,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진로체험, 진로검사 및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소질·적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진로교육 실천 프로그램으로 「진로와 직업」 스마트북, 진로활동지 등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



3. 나가며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 학습 능력, 신체적 특징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진로 인식, 진로 탐색, 진로 준비의 단계를 자연스럽게 체험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꿈너머 꿈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진로 여행이었다.

경남최고장인들이 펼치는 교육기부 - 경남최고장인회

경남최고장인회는 도자기, 금속(재료), 기계, 전기, 조선, 공예(화훼) 등 각 분야의 최고 기술을 가진 장인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남도교육청과 2014. 3월 교육기부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경남최고장인회는 진로교육특강, 견학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지원 등의 인적·물적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있다.

경남최고장인회 교육기부 프로그램 : 특강 및 견학·체험프로그램 운영

- 전화 : 278-5943/010-7257-3337, E-mail : h504075@daum.net
- 체험 및 특강 신청 : 유선 혹은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 사무실 :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1길 22 향림도예원

● 경남최고장인회 특강

- 특강기간 : 연중
- 특강시간 : 40~90분

특강분야	장인	특강분야	장인	특강분야	장인
도자기 공예	이계안	도자기공예	김용득	도자기공예	이위준
도자기 공예	이한길	칠기공예	박재성	칠기공예	정찬복
전기공사	심상홍	전기	이수열	전산응용가공	강찬수
전산응용가공	변점용	생산기계	류일형	생산기계	정영철
금속재료	박영일	금속재료	박남석	금속 재료	이혜영
금형기계	김익곤	프레스 금형	이천석	금속 주조	이석빈
조선제도	정운곤	조선제도	조 기	선체건조	조명수
선박설계	양영모	선체건조	김응봉	가구제작	조복래
기계설비	박수천	생산조립	조영길	화훼디자인	최영욱
제과제빵	김덕규	표면처리	홍연구	주조재료	서영교
자동차 정비	김대홍	요리서비스	정계임	자수공예	서도미

● 경남최고장인회 견학·체험 프로그램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시간 : 일과 중(09:00~18:00) 또는 휴일

분야	주요활동	주소	대상
향림도예원	견학/도자기 체험	고성군 하이면 봉현리 118-3	초,중,고
두산중공업	견학	창원시 성산구 두산블로로 22	고
대복공예사	견학/나전칠기 체험	통영시 북신동 315-15	초,중,고
운당도예	견학/도예 체험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초,중,고
도미자수	견학/자수 체험	김해시 대성동 90	초,중,고
정금공예사	견학/나전칠기 체험	통영시 정량동 354	초,중,고
길천도예원	견학/도예 체험	김해시 진례면 길천도예원	초,중,고
취목공방	견학/가구 체험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218-5	초,중,고
화훼디자인	견학/꽃꽂이 체험	김해시 삼계로 매화플라워아트	초,중,고
제과제빵	견학/제과제빵 체험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쌍용예가	초,중,고
요리	견학/요리 체험	진주시 내동면 내축로 진주향토문화연구원	초,중,고
도자기체험	견학/도자기 체험	고성군 구만면 영회로 1749	초,중,고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방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사안과 담임종결사안 |

글 경상남도교육청 상임변호사(학생안전과) 성수민

I.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관련법령 상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II. 필요적 자치위원회 회부의 예외 - 담임종결사안

- 담임종결사안
 - ①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 ②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음(학교폭력 사안처리 QnA 81p, 2012, 교육부).
 - ③ 화해할 수 있는 기간은 7일 이내로 되어 있음(학생안전과-14426, 2013.9.24).

담임종결사안이라도 사안발생보고 후 전담기구에 알려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전담기구 회의를 거쳐 학교장 내부결재를 받은 후 종결한다.

그리고 ①,②,③ 요건이 다 충족 되어야 담임종결사안으로 종결할 수 있으며, 두 당사자가 화해를 했다고 해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종결사안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에피소드 중심의 六色 토의·토론으로 사고력 신장



글 통영 원량초등학교 교사 석유승

1. 사회수업을 되돌아보며

6학년 아이들과 나는 이야기이다.

교사 :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무엇인가요?”

학생 : “사회가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교사 : “왜 사회가 어려울까요?”

학생 : “집에서 조사해야 하는 숙제가 많아요. 외울게 많아요. 지루해요.”

사회를 어려워하는 아이들! 평소 사전 과제를 제시하면 내용을 잘 이해하지도 못한 채 인터넷에서 베껴 써 오는 아이들, 소극적인 발표 자세와 교사 위주의 강의식 수업 등을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즐겁게 사회 수업에 참여하고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사회 수업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

고민 끝에 사회과 각 영역별 주제에 적합하고 상황에 맞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 六色 토의·토론학습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쉽고 흥미롭게 토의·토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토의·토론 능력 및 고급 사고력 향상은 물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언어문화 개선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에피소드 중심 六色 토의·토론

가. 토의·토론학습 환경조성

교실 환경판을 이용하여 토의·토론에 대한 기본 개념 및 규칙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토의·토론 주제를 직접 정해 볼 수 있는 코너를 만들었으며 아울러 다양한 시사자료를 통하여 사회과의 배경지식 및 호기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급 홈페이지에 토의·토론 관련 메뉴를 설치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토론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THINKBOARD』,『THINKBOX』,『THINK STICK』등의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효율적인 六色 토의·토론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 토의·토론 학습훈련

기본적인 토의·토론의 규칙, 역할분담, 참여 태도 등의 학습 훈련을 아침활동시간 및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활발한 사고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역할(사회자, 토론자, 기록자, 평가자)을 고정하지 않고 순환하여 운영하고 토의·토론 방법에 따라 사회자가 토론자의 역할을 같이 병행하기도 하였다.

토의·토론에 대한 즐거운 경험과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 짝, 모둠, 전체토론의 순으로 연습을 하며 토·토론 주제 선정 시 교사 및 학생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였다.

다. 六色 토의·토론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6학년 사회과 개정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총 25차시의 토의·토론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에피소드를 구안하고 六色 토의·토론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에피소드 토의·토론 학습장』은 사회수업시간에 활용하는 자료로써 토의·토론 주제별 상황에 맞는 에피소드(총 25차시)가 있어 학생들이 쉽게 내용을 파악하고 토의·토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회과 수업모형에 적합한 토의·토론 수업으로 학생들이 토의·토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활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 성취기준에 도달하고 아울러 고급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라미드	짝→모둠→전체의 형태로 의견을 최종적으로 모으는 활동
사모아	전체토론 형태로 중앙에 토론자와 청중이 교체되면서 활동
PMI	모둠 및 전체 활동으로 주어진 대안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김
생각 차트	모둠별(4인 1모둠) 주제에 대한 의견을 비교하고 모으는 활동
짝 인터뷰	인터뷰할 인물을 정하고 짝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활동
야매 대화	짝이 말한 내용을 경청해서 듣고 짝의 의견을 대신 발표하는 활동



3. 토의·토론으로 맺은 열매

3월 초 자기소개를 할 때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토의·토론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며 토의·토론 수업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 같아 교사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된다. 짝, 모둠, 전체 토의·토론을 통해 사고력 향상과 함께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토의·토론 열매를 하나씩 얻은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한 토의·토론 시간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진다.

좋은 수업은 선생님의 가슴에 있다.



글 삼천포제일중학교 수석교사 정혜옥

어이없는 여객선 침몰 사고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특히나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사고를 당해 부모와 친지들, 친구들의 가슴에 영원한 상처로 남은 학생들을 생각하면 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서러운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귀중한 생명을 불시에 잃게 한 사리사욕에 물든 어른들, 위협에 대처하는 몰지각한 처세는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희망덩어리, 기쁨덩어리였던 아이들의 부모 심정은 어떠할까요?

사고로 인한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왜 사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애도수업을 한 시간 해 보았습니다. 까불기만 하고 무질서한 아이들이 한없이 진지해지고 숭고해지며,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관련된 기사와 편지 등을 읽어주고 대화를 나눈 뒤, 숙연한 분위기에서 쪽지 쓰기를 해서 붙이고 돌려 읽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즐겁게 노는 일반 좋아하는 듯했던 아이들 속에 이렇게 진지하고 이타적인 면이 있었는가 싶은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보배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교사는 아이 속에 숨은 가능성을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르치는 일이므로 양심적이지 않으면, 절대자 앞에 서는 듯한 숭고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면 자칫 평생을 두고 자기도 모르게 사기를 치게 되는 무서운 직업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알도록 깨우치도록 바른 삶을 위해 날개짓 하도록 매시간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공부하느냐고,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랍니다.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물으면 돈 많이 버는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 부와 명예를 성취하는 사람 등 다양한 답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토의를 하다가 훌륭한 사람이란 자기 생명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며 정직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 수업을 잘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는 하나로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진정어린 사랑이 있는 교사가 하는 수업이 잘하는 수업입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삶을 안내하는, 사랑하기 위해 이 교실에 와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그 양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부끄럽지 않은 성공하는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력입니다. 끝없이 말쑥을 피우고 교사를 괴롭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삶을 더 낫게, 더 좋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치열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알아준다, 나를 사랑한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라고 느낄 때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가 과연 아이들 하나하나 사랑하는 데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생각해보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수가 적으시고, 분위기로만 저를 가르치는 존경하는 스승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의사는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 사람이지만, 교사는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이다. 의사보다 교사가 훨씬 더 중요한 직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의 모토로 삼고 나는 내가 교사가 된 것이 내 삶에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부하고, 아이의 내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어떻게 사는 것인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삶의 철학을 제시할 수 있는 교사가 훌륭한 수업을 하는 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수업 방법에 관한 책을 안내해보겠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시키지 않는 교실 혁명을 주창하는 '배움의 공동체(손우정 지음)', 수업의 질을 개선시키는 구체적 방법을 말하는 '수업 기술의 법칙(한형식 지음)'이 좋으며, 언어능력개발 및 창의적 논리적 사고와 추리력, 설득 능력 등을 기르기에는 디베이트 토론 학습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 외, '훌륭한 교사는 이렇게 가르친다.(제임스 M 배너 주니어, 헤럴드 C 캐넌 지음)' 라는 책을 교양서로 권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교사는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 그의 곁에서 스스로 배울 뿐이다. 태양은 누구에게도 자기 빛을 주지 않는다. 다만 만물이 그의 빛을 받아 스스로 자랄 뿐.' 비노바 바베



3-up, 3-down을 통한 HAPPY 교육실현

글 김해여자고등학교 교장 장영성

1. 들어가면서

57년간 김해 여성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명문 김해여고는 2013학년도 전국 100대 교육과정 교육부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이 학교의 구성원들이 오늘도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교육 활동을 준비하고 실행해 왔는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서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여성인재 육성의 열쇠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펼치면서

김해여고의 교육중점과제에서는 3-up, 3-down이다. 3-up은 “학력, 창의성, 인성”을 함양하고, 3-down은 학교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학교폭력, 중도탈락자, 비만”을 줄이기로 정하였다. 구체적인 실행과제로는

- Hope 꿈을 갖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으로 꿈을 키우는 교육
- Ability 끼를 펼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동아리 및 진로교육
- Passion 열정을 품고, 건강증진 및 예술·문화체험교육
- Prospect 미래로 나가는, 생각의 깊이를 다지는 독서교육
- Youth 젊음이 라는 교육비전으로 행복한 교육실현을 실현하고 있다.

가.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제2외국어와 탐구과목에 대한 ‘선택과목의 확대’로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집중이수제’ 실시로 학생수업의 부담을 감소하고 기초학력을 강화하는 개인차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여 전년 대비 국어, 영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50%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수월성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논술반, 학업우수심화반, 토요일특강, 방과후 교육활동(교과수업 외 토요일프로그램 등)의 내실화 등으로 사교육비 절감형의 공교육정상화를 이루었으며, EBS 멘토링 교육방송시청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향상되었다. 교육과정 설문 결과 분석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의견과 협의로 보다 나은 교육발전의 방안을 모색하고, 진학설명회와 교육과정설명회 등을 통한 변화하는 대입관련 정보와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준비하였다. 영어듣기 비중이 커진 입시제도에 대처하기 위한 작은 시도로 행복한 아침을 여는 ‘아침영어듣기방송’은 영어듣기평가 점수와 청취력향상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나날이 영어회화에 대한 친밀함을 갖도록 하였다.

안전한 학교를 이루고자 교육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휴대폰 ‘3004지킴이’를 시행하였다. 1.2.3학년 삼(셋)천사 학생들 서로에게 ‘천사 같은 마음으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자’는 의미로, 폭력, 도난, 흡연 등 비행은 목격했을 때 자신의 번호가 아닌 발신번호 ‘3004’를 찍어 학교폭력 및 비행 사실을 학교법인 명의로 된 폰문자(인성부관리)로 제보하여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비행현장을 바로 확인 및 지도가 가능하게 하여 학교폭력을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하여 학교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학년별 꽃밭 가꾸기’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해당반의 분양받은 땅에 꽃밭에서 모종을 심고 가꾸면서 자연생태와 함께 하는 정서적 순화를 가져오고, 생명의 신비를 관찰의 기회(중식, 석식, 창체시간 활용)를 제공하여 행복한 학습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하였다.

나.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과 교육과정

학력과 창의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교사들은 학생의 흥미와 참여를 통한 HAPPY 교실수업개선을 추진과제로 삼고 교과별 협의회를 거쳐 다양한 학습모형을 제시하였다. 영어과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을 위한 영어과 팀티칭 수업, 국어과에서는 ‘독서릴레이’, ‘금별글벗누리독서교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표현력 향상수업, 김해지역 탐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역사과 토의수업, 창의력 향상을 위한 수학과 프로젝트수업 등의 노력이 돋보였다.

글로벌 인재를 위한 ‘영자신문’ 동아리반은 영어로 생각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교 행사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에피소드를 영어로 표현하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 결과 외국어부문- SIFEC 전국영어 말하기대회 최우수상을 입상하였고, 그 외 2013 경남정보올림피아드 고등부 부문 은상, 경남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고등부(탐구토론) 부문 장려상 등의 교육성과를 보였다.

창의성과 표현력을 up시키는 과정중심의 평가방법으로 과제물제출의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와 협동학습중심의 수행평가(사회과), 실험, 실습, 체험,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한 과학과 수행평가, 획일적 기준의 지필평가 비중 축소하고 성취수준 달성과정 및 협동심, 책임감, 상상력 등 창의·인성적 요소를 포함하여 평가하는 음악과, 미술과, 체육과, 기술과 정과의 수행평가에서는 실기 과정중심을 관찰로 학생 개인의 다양성과 잠재력이 발굴되게 하였다.

다. 꿈과 끼를 키우는 체험, 진로활동

학생들의 숨은 능력신장을 계발하기 위하여 교과와 연계한 동아리, 취미활동을 위한 동아리, 진로탐색을 위한 동아리, 김해지역 환경탐구와 지역보살핌이 필요한 기관의 봉사활동을 위한 동아리 등으로 나누어 동아리반을 개설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월 1회 반일제 체험중심의 동아리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HAPPY 교육실현을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예체능부문 제37회 가야문화축제 주관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성악부문 우량, 제4회 예술종합콘서트바토리 전국실용음악콩테스트 보컬부문 최우수 2학년 제17회 경상남도 청소년 연극제 우수상(단체) 수상, 개인 연극상 수상, 2013. 청소년스타킹대회 밴드부문 “아브락서스” 동상 수상 등의 거양을 가져왔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HAPPY 교육실현을 위해 중식, 석식 등의 틈새시간을 활용한 학년별 운동경기 시합으로 체력을 다지고, 한방 생리통예방교실 및 비만예방 프로그램, 보건교사의 웰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강한 체력으로 긍정적인 사고함양을 다지게 되었다. 또한 도움반 학생들의 사회적응교육으로 ‘카페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특수학급 학생들의 직업능력 배양 및 사회성 함양을 키우고 일반학생과 교직원에게 카페나눔의 취지와 방법을 알려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장애이해 교육을 도모하고 그 수익금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여 장학금에 쓰이도록 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였다. 또한 학교특색사업의 일환인 ‘1인 1악기 연주’를 통한 작은 음악회 개최, 학년별로 명화가 있는 갤러리, ‘선플달기’로 바른 언어교육, Wee클래스를 활용한 학교부적응 및 중도탈락자예방을 위한 꿈키움 교실, 김해향교 예절교육을 통한 바른 몸가짐과 예절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등 인성 up을 가져오는 HAPPY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3. 나오면서

‘3-up, 3-down을 통한 HAPPY 교육실현’은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 주기 위하여 교수·학습활동의 변화를 가져왔고 소질을 계발하고 꿈을 가꾸며 끼를 살려 내기 위한 체험중심 교육활동 전개는 교육 중점 과제인 3-up(학력, 창의성, 인성)을 실현하였으며, 미래사회의 주인들에게 3-down(폭력, 중도탈락, 비만) 중심과제 실행은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능동적 금별인’이라는 교육목표의 인간상을 구현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게 하였다.

김해여고의 HAPPY 교육활동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김고 보태고 메워서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교육공동체의 열정과 함께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꿈과 행복이 자라는 무지갯빛 라온누리

글 창원동중학교 교장 강대근

I. 시작하면서

2013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무지갯빛처럼 다양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학생의 라온누리(행복한 세상)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행복이 자라는 무지갯빛 라온누리 교육과정」이란 주제로 교육과정을 전개하였다.

II. 실천 사례

1. 학생행복, 교육과정에서 시작

가. 더 가깝게, 더 믿을 있게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인인 학교를 위해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준비하였다. 특히, 엄마표 학부모 활동(학부모자원봉사, 도서관 도우미, 문학기행, 진로아카데미)으로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의 길을 열었다.

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선진형 교과교실제 구성, 스마트교육환경 조성한 하드웨어교육환경을 조성하였고, 꿈 가꾸기 독서노트, School Calendar 제작 활용하여 휴먼웨어를 조성하였다. 소프트웨어조성을 위해 블록타임수업, 융합수업

(전 교과에서 진로와 인성 주제)을 학기당 2회 이상 편성하였다.

다. 학교 및 지역교육환경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주남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교과로 환경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안보 및 나라사랑 교육도 강화하였다. 수준별 이동수업(수학·영어, 과학)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위한 수업개선, 진로교육, 스마트교육 컨설팅 활용으로 교사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즐거운 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환경 및 교수학습과, 독서로 통하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윤독독서운동을 진행하였다.

2. 학생참여, 수업혁신에서 시작

가. 수업혁신을 위한 자기 계발 & 수업방법 개선

배움의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찾아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스마트교육 활용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통해 수업 혁신을 추구하였다. 또한 스마트텔리트 동호회(교육과정, SMART교육)를 운영하여 교

육과정과 SMART교육을 지원하였다. 교사들은 나만의 명품 수업 진행으로 1년 동안 자료를 축적하면서 교수·학습의 달인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교실에 갇힌 수업 벽 허물기를 위하여 교과연계 진로 체험 활동을 전 교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제 중심의 차시통합형 Co-Teaching을 전 교과에서 실시하였다. 교과 및 창체 수업에서 교과의 특성에 맞는 주제 중심의 체험적이고 또래와 협동하는 즐거운 인성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학교 폭력예방에 효과적이었다.

나. 학생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방법 & 과정중심 평가 개선

학습클리닉으로 기초학력 다지기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0.7%에서 0.06%로 줄어들었다. 행복수업 프로젝트로 영재학급은 물론 특수학급까지도 함께 진행하였다.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집중이수교과에서는 과정중심평가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시험부담을 줄였다.

3. 학생 꿈·끼, 체험·진로에서 시작

가. 나만의 꿈과 끼를 살리는 O₂같은 체험활동 & 체육·예술 교육으로 행복 공감 누리기

음악, 독서, 인성, 체육 부문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체험활동 지원하고, 학생들의 특기 적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직접체험 활동을 활성화시켰다.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줄넘기 대회, 0교시 스포츠리그를 통하여 체력을 향상하고 인성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크게 기

여하였다. 주중 또는 토요일 방과 후 학교 6개반을 운영 꿈과 끼를 키우는 장으로 만들었으며, 방과 후 학교 100%참석과 수강률 158%를 이루었다.

나. 행복으로 공감하는 체험활동 & 학생이 행복한 세계시민 프로젝트

예술 활동으로 행복 기 펼치기를 위해 5개반 영역으로 활동하여, 나눔교육, 행복한 나비효과를 위해 봉사활동 및 연담모금 활동을 진행하였다. 문화금식운동과 Save the Children운동으로 아프리카 아동지원 활동을 하였으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 등 글로벌 회사 체험과 특강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였고, 학교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지속발전가능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꿈을 찾아 떠나는 진로 여행 & 내 꿈의 내비게이션을 달자

상상팡팡교실을 운영하며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감을 키우기를 위해 전교생이 직업체험활동과 교과를 연계한 현장 직업탐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8개반의 진로관련 교과 무학년 동아리활동을 운영하여 직업세계의 객관적 이해와 자신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였다. 꿈 키움반과 학습 도움반을 운영하여 교육배려 대상자들에게 진로 지원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더 행복한 솔로몬 랜드& 배려와 공감의 인성교육

3無 3행운동 실천으로 자발적 자정문화 형성으로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였다.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나라사랑프로그램으로 나라사랑 실천의지를 함양하였고, 학부모·지역사회와의 협력지도를 위해 상담활동, 캠페인, 협력 스포츠 활동을 진행하여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하였다. 아버지는 나의 힘이란 주제로 부자사랑축구, 부자사랑캠핑, 아버지순찰대를 운영하여 중도탈락자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였다.

IV. 교육적 효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기초학력 미달자는 0.7%에서 0.06%으로 줄였고, 5년 연속 중도탈락자 및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 중심의 체험활동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진로 탐색과 직업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국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음악을 즐기는 디지털 원주민들의 교실

- 악기 연주를 통한 음악적 감성 키움,
우리반 SNS를 통한 공감 나눔 -

글 통영 충무초등학교 교사 최건희

1. 들어서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출근길. 오늘 아침도 저 커다란 기타를 킁킁대면서도 들고 오는 우리 아이들이 보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번, ‘음악이 있는 아침 활동’ 시간이 있는 금요일입니다. 아침부터 시끄럽게 다른 반에 민폐이기도 하고 곡 선정에 악보 준비에 기타, 우쿨렐레, 리코더, 펜비트까지 파트를 나누려면 보통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니지만, 그 하루아침을 위해 저렇게도 열정적으로 악기를 챙겨오는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하길 잘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보람이 이런 때가 아닐까요?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매우 많지만 특히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잘 할 수 있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딱 두 가지, ‘악기 연주’와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을 선택하였습니다.

2. 스마트 기기로 똑똑하게 배우고, 직접 하는 악기 연주로 음악이 흐르는 학급

스마트 교육이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정착해 가고 있는 반면, 아이들의 인성과 감성 교육은 도의시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편리한 스마트 기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그 답을 ‘스마트 기기로 똑똑하게 배우고, 직접 하는 악기 연주로 음악이 흐르는 학급’으로 찾고자 합니다.

6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요즘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SNS는 바로 ‘BAND’라는 앱입니다. 밴드는 언제든지 스마트 폰, 컴퓨터로 접속이 가능하고 동영상, 사진도 자유롭게 탑재가 가능할 뿐 아니라 회원들 간의 개인적인 대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홈페이지보다 훨씬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저는 이 ‘BAND’라는 공간에서 서로 소통

합니다. 학생들의 사소한 일상을 서로 나누고 자신이 연습한 악기 연주 동영상을 올리거나 하면 아이들끼리 서로의 게시글에 관심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나눕니다. 학교에서 소극적인 아이도 디지털 공간에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개인적인 고민을 가진 아이들을 즉각 상담할 수도 있어서 교사인 저에게도 무척 편리한 공간입니다. 또 밴드에 올라온 학생들의 과제나 사진, 영상 자료는 수업 시간에 활용함으로써 좋은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앱을 이용한 소통의 활성화는 요즘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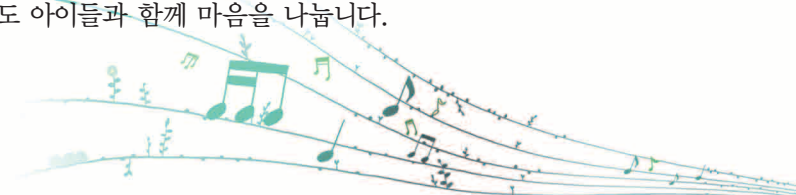
우리 반 아이들은 소박한 실력이나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학기 초, 악기 연주를 취미로 삼게 해주고 싶어 각자 흥미에 맞게 하나씩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선택한 악기는 기타, 우쿨렐레, 리코더, 멜로디언, 펜비트. 매주 금요일 아침활동을 ‘음악이 흐르는 아침활동’ 시간으로 두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같은 악기 파트 친구들끼리 모여 연습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합주를 완성한 곡은 바로 ‘교가’. 교가를 완성한 것은 아이들에게도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교의 교가를 연주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애교심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으니까요. 이어 자탄풍의 ‘너에게 난, 너에게 난’이라는 곡을 개사하여 만든 반가를 비롯하여 수많은 곡을 연습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악보 보는 앱, 튜너 앱, 메트로놈 앱 등 스마트 기기를 적극 활용해서 말이죠. 아이들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지금은 ‘All about you’, ‘Puff the Magic Dragon’, ‘베토벤 바이러스’ 등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습한 영상이나 연습 자료 등을 우리 반 밴드에 올려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다시 스마트 수업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이패드의 123D CATCH 앱으로 아이들이 만든 미술 작품을 3D 오브젝트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이들이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직접 3D 이미지로 제작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간단히 적, 청 안경으로 볼 수 있는 3D 이미지 만들기 수업을 했습니다. 먼저 셀로판지로 3D 안경을 만들고 앱을 활용하여 직접 찍은 사진을 간단히 3D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 아이들은 완전히 몰입하여 제작에서 감상까지 빠져 들었습니다. 거기서 탄력을 받아 이번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 때에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고 우리 반 밴드에 올려 학부모와 함께 제작 발표를 3D로 감상할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것을 알면 학부모님들의 생각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3. 나가며

우리 반 아이들은 참 시끄러운 편입니다. 항상 분주하고 바쁘고 활기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 다니고 기쁘게 생활하는 모습으로 보여 참 행복합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우리가 노력하는 바로 그 교육의 목적이 아닐까요? 교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능력으로 아이들이 기쁘고 행복한 학교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보람인가요?

악기를 조금 더 잘 다루는 친구가 조금 부족한 친구를 이끌어주고, 함께 합주하면서 함께 감성을 나누고, 우리 반의 디지털 공간으로 소통과 대화와 정보를 공유해 나감으로써 점점 커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다 밝고 건강해지길 기대하며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독도교육활동으로 나라사랑교육에 날개달기



함양고등학교 **오진혁** 선생님을 만나다.

국토사랑 독도교육활동을 중심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실천하는 대한민국 지리교사, 오진혁 선생님과과의 만남.

Q. 선생님께서는 나라사랑교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참여하셨던 교육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학생들의 올바른 국토관 확립을 위한 관점에서 나라사랑교육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독도 T/F 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 대회인 독도과거대회 및 지리올림피아드대회의 경남대회 유치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교육자료집 『우리 땅 獨島, 大韓의 자긍심 독도교육』 및 한·중 역사 현안 이해교육자료집 『동북공정 바로 알기』 발간에 참여하였으며 경남 독도 플래시몹 심사위원, 중국 임시정부 답사 로드맵 구축 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독도동아리를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독도와 관련된 인물들을 연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기도 하였으며 방과후 활동으로 ‘답사로 배우는 지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Q. 『우리 땅 獨島, 大韓의 자긍심 독도교육』을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A. 독도교육자료집 『우리 땅 獨島, 大韓의 자긍심 독도교육』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지도할 수 있게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자료집은 교수·학습 과정안, 개별활동지 및 모둠활동지, 참고자료, PPT 자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교과와 관계없이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Q. 독도과거대회는 2012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는 독도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도과거대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독도과거대회는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이 함께 추진하여 온 올림피아드와 유사한 전국대회입니다. 작년부터는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도과거대회는 독도교육의 활성화 및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실질적인 독도교육 및 영토 수호의 중요성 인식,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영토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육성을 위해 지리교사연합회가 전국적인 단위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 31

일에 지역대회가 열렸습니다. 지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독도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독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지만 독도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Q. 선생님께서는 독도동아리 운영 경험도 많으십니다. 기억에 남는 동아리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A.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독도동아리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 중 작년에 함양고 학생들과 함께한 동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과 함께 독도와 관련된 서적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을 조사하고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서울의 독도문제연구소 및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국가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Q.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기본적으로 동아리는 교사가 아닌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잘 부각시켜 스스로 자생동아리를 만들고 담당교사는 동아리 운영과 관련하여 함께 협의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후원하는 스폰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성된 동아리는 능동적인 활동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능동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구성원들은 독도문제가 언론에서 부각될 때에는 교문에서 ‘독도 알리기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독도와 관련된 설문조사, 소식지 발간 등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책임감 있게 활동합니다.

Q. 2014학년도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독도교육을 계획하거나 실시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알찬 독도교육 실현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독도는 엄연한 우리 국토의 일부로 당연히 역사 및 지리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역사적 사료에 근거를 두어 독도교육을 실시한 것에 비해, 요즘에는 역사적인 증거와 함께 지리적인 관점도 중요시여기며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가 우리 민족의 생활권이었던 지리적인 관점이 중요해졌고 국제법상에서 독도의 자리매김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독도교육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독도 및 우리 국토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대부분 교육활동이 그러하듯이 독도교육에서도 먼저 독도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독도에 직접갈 수가 없다면 기존에 개발되어진 자료나 학습프로그램 및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저는 대한민국 지리교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들녘과 바다, 산과 강을 더 많이 체험하고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작은 흔적으로 남겨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좀 더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소 학교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다닐 때에는 체험학습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결과를 항상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을 모아서 저와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우리 국토를 연구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로 놓아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저의 작은 몸짓들이 나라사랑교육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능 기부로 일궈낸 사랑의 교복나누기

글 창원교육지원청 프로젝트조정자 정숙자

2014년 1월 22일 교복 판매로 제1회 사랑의 교복나누기 사업의 첫발을 뗐다. 지역사회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재능기부의 형태 이루어진 ‘사랑의 교복나누기’는 버려지는 교복을 교육복지에 활용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는 ‘교복 물려주기’를 ‘사랑의 교복나누기’로 명칭을 바꾸는 등 학생들 스스로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나눔과 배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결과이기도 했다.

‘사랑의 교복나누기’ 사업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덕분에 학부모는 싼값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었고 학교는 세탁과 수선, 보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복지공동체를 실현하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150여명의 재능기부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이루어졌다. 두산중공업 사회봉사단은 관내 12개교의 교복을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로 옮겨주었다. 창원시 여성회관 마산관 자원봉사회원들은 교복을 상태와 치수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동아리회원은 수선작업을 재능기부하였다. 수선된 교복은 교육행정공무원 봉사동아리 회원들에 의해 창원 내 세탁소 16곳에 운반되어 세탁되어졌다. 이후 교복은 아름다운 가게 3개 지점에서 한 벌 당 1만원에 판매되었다. 이러한 ‘사랑의 교복나누기’ 사업의 전 과정은 고등학생 영상반 학생 5명에 의해 동영상으로 담겨졌다. 교복 한 벌 당 가격을 27만원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기부된 2,400여 벌의 교복은 6억 원이 넘는 경제적 효용가치를 발생시켰다. 또한 교복 판매액 3백 60만원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되었기에 의미있는 교육복지사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랑의 교복나누기 사업은 일부 학교나 지역에서 시행해 왔던 것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기에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교복판매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참여하지 않은 학교의 교복을 구매하려는 학부모와 고등학교 교복을 찾는 학부모가 많았다는 점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사랑의 교복나누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교복을 판매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낸 또 하나의 성과는 영세한 세탁소의 무한정 재능기부 참여에 한계가 있음을 공감한 두산중공업이 세탁비 전액(천만원)을 후원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4월 두산중공업과 교육지원청의 MOU체결로 이어졌다. 또한 창원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어린이 날 아동 3,000명(1인당 3만5천원 총 1억 5백만원)에게 지급될 학용품도 지역기관으로부터 기부 받았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학교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우리의 교육복지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마친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교육복지의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크나큰 복이라 여겨진다.

딸과 함께 본 영화, 겨울왕국

글 함안 호암초등학교 학부모 이성권

지난 겨울에 개봉한 영화 겨울 왕국, 우리 딸은 이 영화를 처음 본 이후 지금까지 겨울왕국에 푹 빠져있다. 나는 이 영화를 딸과 함께 극장에서 두 번, 그리고 집에서 DVD로 세 번 보았다. 이제는 영화 속 주인공들이 부른 노래와 주요 대사들을 거의 다 외울 정도이다. 또한 우리 집 여기저기에는 겨울왕국 색 칠공부, 겨울왕국 책, 겨울왕국 스티커, 우산, 머리핀, 티셔츠, 학용품 등 겨울왕국과 관련된 다양한 물건들이 있다. 하지만 딸아이는 겨울왕국과 관련된 새로운 물건을 보면 또 사달라고 조른다. 내 딸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도 겨울왕국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이 영화 속에 푹 빠져들게 하였을까?

기존에 개봉했었던 영화들은 주로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구성이었던 것 같다. 명탐정 코난 시리즈, 동물이 주인공이었던 영화, 공룡 관련 영화... 내용뿐만 아니라 영화 주인공 대부분이 남자였고 동물이었다. 이에 비해 겨울왕국은 주인공부터가 여자이다. 또한 이들은 어느 환상적인 왕국의 예쁜 공주들이며 마법도 사용한다. 오랜만에 등장한 공주라는 캐릭터가 여자 아이들을 영화 속으로 더 쉽게 빠져들게 한 것 같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옷이나 구두, 가구 등의 다양하고 이색적인 디자인이다. 감독은 주인공들이 입거나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디자인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것 같다. 놀랍게도 여자 아이들 역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아니, 여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감독은 이미 알고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 딸아이가 그린 그림에서 안나와 엘사의 드레스와 구두, 헤어 디자인을 살펴보면 아이가 주인공을 얼마나 주의 깊게 보았는지 알 수 있다. 안나와 엘사가 입고 나오는 드레스와 구두의 디자인과 색상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유심히 보았던 것이다. 여자아이들의 심리를 꿰뚫어 영화 속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쓴 감독의 섬세함이 놀랍다.

겨울왕국의 또 다른 매력은 이야기의 반전 구조이다. 지금까지의 공주 시리즈를 떠올려보면 극의 마지막 부분은 왕자들에 의해 해결된다. 왕자의 키스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왕자를 위한 공주의 희생으로 끝나기도 하고, 왕자가 공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기도 한다. 사실 나도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마지막 장면에서는 기존의 공주 시리즈처럼 끝날 것이라 예측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반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안나가 언니를 구하며 얼음이 되어버리는 순간, 크리스토퍼는 안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이 장면에서 크리스토퍼의 눈물이나 키스에 의해 얼었던 안나가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영화는 달랐다. 엘사가 자신 때문에 얼음으로 변해버린 동생 안나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그 동안 마음을 닫고 지냈던 것을 반성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그 진실한 사랑 덕분에 안나는 깨어나게 된다. 남자가 아닌 가족의 사랑이 영화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장식하게 만든다. 나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기에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였을까? 이것이 이 영화의 또 하나의 매력인 것이다.

겨울왕국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2억 달러(약 1조2288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앞으로 아이스쇼로도 제작된다고 하니 그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현재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사업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탄탄하고 창의적인 구성에 섬세한 감성을 담은 멋진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어 전 세계 어린이들을 감동시켜줄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20대 청년들에게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정여울 (지은이) | 21세기북스(북이십일) | 2013-05-10

글 마산고등학교 교사 윤금엽

누군가에게 위로의 존재가 된 적이 얼마나 있을까? 위로받고 싶어 했던 적은 많았는데... 위로의 힘으로 다시 힘을 낸 적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위로는 무엇이길래, 그토록 갈망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위로’라는 사전적 개념 정의는 정작 위로는 되지 못할 것 같다. 위로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품은 표정과 눈빛에, 나의 마음이 고마움과 안도감으로 바뀔 때 그때 비로소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힐링, 테라피, 치유 등의 단어들은 정신적인 피폐와 삭막함이 배어 있는 오늘을 대변하는 유행어다. 30대 후반의 나이가 된 작가 정여울은 20대를 위로 해주고 싶어했다. 그래서 자신의 방향을 압축한 20대를 풀어놓음으로써 그들에게 자신도 별 것 없는 것에 고민하고 우울해했으며 삶의 외곽으로 도피하기도 했다고, 그리고 나니 비온 뒤 말갭게 개기 시작한 하늘처럼 서서히 구름이 걷히고 삶이 보이는 30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잔잔하게 전한다. 선율의 큰 변화 없는 재즈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문체이지만 그 안에 강인한 확신이 담겨 있다. 나는 그랬지만 너희는 더 나은 20대를 보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전해진다. 달리기만 하는 너의 삶을 저기 멀리 비껴나 바라보라고, 어떤 삶을 살 때 ‘완전한 능동태’의 행복(p.117)을 느낄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내가 30대라 그런지 그녀의 ‘그때 알지 못했던 것들’이 나의 그것들과 자꾸 겹친다. 학생증이란 신분증 명서가 없어지고 나서야 배움의 갈망과 배우지 못한 곤궁함을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그 절절함은 더 배우고 싶은 것들의 리스트가 쌓여가는 것을 방관만 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그건 신분의 전환이 있어야 깨달게 될 진리 중 하나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그때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 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공통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처럼 사랑, 연애, 우정, 직업, 방향 등은 20대에 지나가야하는 전공과목이지만 구체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좀 더 천천히 자신을 조금 더 오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얇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획, 넘어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삶의 의미’가 보이는지 조금 더 오래, 안 보이면 두 팔을 잡아 당겨 휘저어서라도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다. 무엇이 자신의 삶을 비출 수 있을지. 자신에게 더 의미 있는 선택이 무엇일지. 조금 늦게 필수 코스를 통과하더라도 그 앞 지점에서 더 오래 머물며 자신의 삶 전체를 얇게나마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과연 누가 당신을 달리게 하고 있는지, 그 많은 스펙들을 쌓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의 선택인지, 선택 같지만 타인의 강요를 짊어진 선택 상황은 아니었는지.

지금 나는 이 책을 포장한다. 서울로 상경해 외로운 자취를 하고 있을 그 녀석에게 이 책을 싸 보내려고 한다. 3년 동안 한 번도 마음을 표현하지 않던 녀석으로부터 작년 말 긴 편지와 상자 가득 담은 몸에 좋은 먹거리들을 받고 나니, 나도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위로와 고마움을 건네고 싶어졌다. 작은 선물을 보낼테니 주소를 달라고 했다. 돌아온 답변, ‘선물에 크고 작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그의 문자가 도리어 나를 위로해버린다. 이제는 내 차례다. 확실히 내가 그를 따스하게 안아 줄 차례다. 이 책이 그 녀석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수많은 지표 중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 마음을 담아 봉투에 담는다.



합천 일을 계승하는 『삼가 춤 선비 동아리』

글 합천 삼가초등학교 교사 문주한

‘일’은 정신의 중심, 쫓대라고 한다.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에 가치가 높은 현대사회에서 ‘일’ 교육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 전반으로 집단 따돌림, 자살,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삼가 춤 선비 동아리’를 결성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합천 일에 대하여

합천 일이란 합천군의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이다. 합천군은 가야연맹의 소국이었던 황금 칼의 나라 ‘다라국’이 있었던 곳이고, 고장 곳곳에 역사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또한 현재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4개의 향교가 있는 곳으로 남명 조식 선생을 배출한 경상도의 최고의 선비마을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에 충과 효의 고장으로 이와 관련된 수많은 유적과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예, 덕, 학행과 관련한 많은 역사적 자료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합천의 일을 크게 충(忠), 효(孝), 예(禮), 덕(德), 학행(學行) 다섯 가지 정신으로 함축할 수 있다.

◎ 삼가 춤 선비 동아리 활동은 이렇게

삼가 춤 선비 동아리는 합천 일을 계승하고, 선비정신을 실천하는 삼가초등학교 어린이, 교직원, 학부모를 목표로 한다. 즉, 열심히 공부하고 고운 마음씨로 바른 생활을 실천해 나가는 삼가초등학교 어린이, 학식과 덕성을 갖추고 바른 생활을 실천하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말한다.

<어린이>

- 삼가 촌 선비 어린이 생활본 활용
- 합천 얼 발자국 프로그램 참여
-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 향토 선비문화 체험 탐방
- 삼가 촌 선비 어린이 시상

<교직원>

- 합천 얼 관련 전문가 연수
- 합천 얼 관련 학급교육과정 운영
- 합천 얼 관련 자율장학 연수
- 합천 얼 관련 워크숍 실시
- 합천 얼 관련 수업 지도

<학부모>

- 향토문화, 선비정신 교육공동체 연수 참가
- 합천 얼 교육 관련 학부모 교육 전개
- 삼가 촌 선비 어린이 생활본 가정과 연계 활용
- 합천 얼 체험학습 참여

삼가 촌 선비 어린이 동아리가 한 해 동안 활동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교내 활동	교외 활동
3월	합천의 자연환경, 역사 알아보기	· 합천 관내 역사적 인물 알아보기 · 삼가장터 3·1운동 기념행사 참가 · 삼가면 벚꽃 길(만류제) 걷기
4월	웃어르게 예절 실천하기	· 합천 얼 교육을 위한 관내 현장 체험학습(일정 기간 연기)
5월	(조)부모님께 효도 실천하기	· 합천 얼 정신 함양을 위한 삼가 어울림 한마당 운영 · 내 고장 병영체험, 삼가 향교 예절교육
6월	합천의 문화유산 조사하기	· 호국 보훈의 달과 연계한 나라 사랑 교육 · 충훈탑 참배, 이순신 장군 백의 종군로 걷기
7월	합천 얼에 대해 알아보기	· 합천 박물관 및 고분 탐방 · 합천의 유명한 역사적 인물 알아보기
8월	합천 얼과 관련된 이야기 찾기	· 합천 문화 유적지 탐방
9월	합천 얼 관련 인물 조사하기	· 합천 문화원 방문
10월	선비의 삶 실천하기(체험중심)	· 합천 얼 교육 및 타 지역의 역사적 유적지 현장체험학습
11월	삼가 촌 선비 동아리 보고서 발표	· 합천 얼 체험활동 활동 사진전(학예회 전시)

삼가 촌 선비 동아리는 본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학교·학년교육과정에 동아리 활동을 반영하여 따로 방과후 활동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학부모님들의 참여는 학부모 사업을 연계 운영하여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거나 교내 행사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계획을 마련하였다.

동아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면서 처음에는 생소한 합천 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의 많은 문화유적, 인물들을 알아보면서 자부심, 애郷심이 생겨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본교에는 예절체험실이 마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선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예절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어 선비의 삶을 체험하는데 더욱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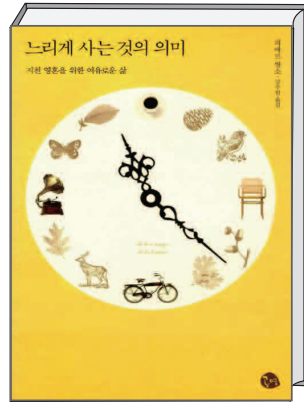
◎ 삼가 촌 선비 동아리의 나비 효과를 기대하며

본교에서 시도해보는 선비 동아리가 처음에는 작은 나비가 주는 효과일지 모르지만 동아리 활동이 지속되고 깊이 있게 실시되어 학교 나아가 각 가정까지 영향을 주고 나중에는 바른 인성이 마음속에 번져나가 실천하는 모습으로 발현되길 기대해 본다.

실제로 최근 예절 및 효도일기로 예와 효를 실천해 본 아이들은 평소 예사말을 쓰다가 높임말을 쓰니 어른이 된 것 같고 좀 더 책임감이 생긴다는 글을 찾아볼 수 있었고, 부모님과 대화나 스킨십이 적은 아이들이 대화를 하며 어깨와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보람되고 계속 효를 실천해보고 싶다는 다짐 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삼가초등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전통 정신인 합천 얼을 되새기고 실천하는 선비가 되었으면 한다.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

피에르 쌍소 저 | 강주현 옮김 | 공명 | 2014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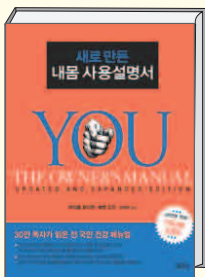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던 2000년 밀레니엄이 도래하던 시대, 모두가 한목소리로 빠름과 성공을 숭상했다. 관습처럼 바빠 움직이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피에르 쌍소는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 중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것과는 다른 삶의 가치도 있음을 환기시켰다. 그가 강조한 삶은 우리 시대의 낡은 가치를 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졌던 '느림의 삶'이었다. 쌍소는 이 책에서 자신에게 맞는 정상적인 인생의 속도를 찾아, 살아 있음을 음미하는 여유로운 삶에 대한 필요성을 말한다.



공부하는 척 하지마라

송인섭 저 | 청림출판 | 2014년 2월

자기주도학습의 세계적인 권위자 송인섭 교수가 지난 8년간 만난 수만 명의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을 실천하면서 경험한 시행착오의 모든 원인을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 대표적인 문제를 18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아이의 특성에 맞는 공부법과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이 책은 모두가 바라는 실패 없는 공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잔상 훈련법', '시험 상황 만들기', '개념 지도 그리기', '수학 오답 노트 작성하기' 등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70여 가지의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새로 만든 내몸 사용 설명서

마이클 로이젠 외 | 유태우 옮김 | 김영사 | 2014년 2월

전 세계에 내 몸 사용 신드롬을 일으킨 화제의 책. 국내에서도 30만 독자가 읽은 전 국민의 건강 매뉴얼 <내몸 사용설명서>가 2014년 새롭게 태어났다. 9년 연속 미국 최고의 명의로 선정된 의사들과 함께 몸속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놀랍도록 신비로운 우리 몸을 탐험하라! 의학계가 주목하는 '간과 췌장', 젊음과 건강까지 고려한 근육 운동 챕터를 추가하고, 전 세계 독자들이 보내온 궁금증에 답하는 등 100페이지에 달하는 의학 상식을 새롭게 더했다. 몸속 곳곳을 탐험하며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노화하는지 그 실체와 진실을 알려주며, 우리 몸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다.



사랑섬 추억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사랑도의 상도 사금마을
상도와 하도 사이 동강이라는 해협이 잔잔히 흐릅니다.
상도를 한 바퀴 돌다보면 옥동, 사금, 돈지, 내지, 대항, 답포
굽이굽이 포구를 끼고 아름다운 마을들이 이어집니다.
바다로, 산으로 해말은 아이들과 함께했던 날들이 그리웁습니다.

서경숙 / 밀양 밀성초등학교 교사

-
- 한국미술협회, 경남한국화가회, 경남선면작가회, 경남초등미술연구회, 무학화가회, 밀양미술협회, 구상작가회 회원
 - 경남미술대전, 경남여성대상전, 전국교직원미술대전, 전국한국화대전 등 다수 입상

제24회 나라사랑 국가상징 큰잔치

전국 초등학생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공모대회

주 제 국가상징(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등) 관련

응모기간 2014. 5. 20(화) ~ 7. 11(금)

응모구분 및 분야

- 응모구분 : 저학년부(1~3학년), 고학년부(4~6학년)
- 응모분야 : 글짓기(동시, 산문) / 그림그리기(한국화, 서양화)

규격

- 글 짓 기 : 산문인 경우 200자 원고지 8매 내외 또는 A4용지 1매 내외(11p)
- 그림그리기 : 캔트지(저학년 8절, 고학년 4절), 화선지 2절
※유화, 아크릴 물감을 제외한 모든 재료 가능

결과발표 2014. 8. 1(금)이전

독립기념관 홈페이지(www.i815.or.kr)

시상에정인원 720명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330-843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교육센터
- 방 법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후 작품뒷면에 부착 제출
- 문 의 : 041-560-0256~7, 041-560-0261

유의사항

- 작품은 1인 1점 제출
(단, 동일인이 글짓기 1점, 그림 1점 응모 가능)
- 부모나 교사가 대신 써주거나 그려준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됨
- 응모한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독립기념관에 귀속됨

시상식 2014. 8. 15(화) 광복절

구분	상격	인원	상금(품)/1인	
글짓기	대상	안전행정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2	200,000
	금상	독립기념관장상	6	100,000
	은상	독립기념관장상	12	70,000
	동상	독립기념관장상	40	50,000
	장려상	독립기념관장상	160	
	계		220명	
그림그리기	대상	안전행정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2	200,000
	금상	독립기념관장상	12	100,000
	은상	독립기념관장상	36	70,000
	동상	독립기념관장상	90	50,000
	장려상	독립기념관장상	360	
	계		500명	

